

청백-e 시스템·자가진단 제도·공직윤리 관리시스템

# 장성군 '공직 청렴도' 높인다

## 행정투명성 확보 '자율 내부통제' 제도 도입

청렴의 메카로 자리잡은 장성군이 이번엔 공직자의 내부 청렴도 향상에 적극 나선다.

29일 장성군에 따르면 각종 공직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감사시스템인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율적 내부통제란 기존의 사후 감사체계와 달리 자치단체 스스로가 공무원의 업무처리 과정을 상시 확인·

점검해 업무를 처리하는 데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해이(착오)나 오류, 부정과 비리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장성군은 이를 위해 청백-e 시스템, 자가진단 제도(Self-Check), 공직윤리 관리시스템 등 3가지 방식으로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청백-e 시스템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다수의 행정정보 시스템을 상호 연계해 업무처리 과정을 담당자 외에

도 관리자와 감사자가 공유함으로써 부당하게 처리된 업무나 비리 등을 발견하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자가진단 제도는 청백-e 시스템으로도 내부통제가 어렵고 비리발생이 우려되는 8개 분야 63개 업무에 대해 자기 진단표에 따라 공무원 스스로가 확인·점검하는 제도다.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은 청렴교육 이수, 시책 제안 등 개인·부서별로 청렴지수를 수치화 해 실적을 관리하는 제도로 공무원의 청렴마인드 제고가 기대된다.

장성군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군수를 주축으로 내부통제 위원회와 3개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다음달 2일 첫모임 때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해 행정의 효율성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로 부여될 예정인 만큼 전 공직자가 시스템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 우드랜드 아토피캠프

지난 28일 장흥 우드랜드에서 열린 아토피캠프에 참가한 광주 삼육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이 물청한 편백나무에서 뿐어져 나오는 피톤치드를 마시며 치유의 숲 걷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 청자불판에 삼겹살... “맛이 끝내줘요”

## 웰빙상품 '강진 청자불판' 시식회

### 냄새없고 맛 담백... 고기도 안 타

"강진 청자로 만든 불판으로 삼겹살을 굽는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강진군은 지난 28일 강진읍내 한 음식점에서 시식회를 갖고 아이디어 웰빙상품으로 개발한 '강진 청자불판' 신상품을 공개했다.

음식분야 전문가와 청자 장인 등이 참석한 이날 시식회는 청자불판의 개발 과정 설명에 이어 청자 불판에 의한 삼겹살을 시식하는 시간과 참가자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7개월간의 연구끝에 탄생한 청자불판은 실험결과 시중의 일반 철판에 비해 연기가 없고 고기가 타지 않아 육류를 구울 때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의 발생을 최소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자불판은 또한 원적외선을 방출해 속까지 골고루 익혀 수육처럼 부드럽고 담백한 맛을 즐길 수 있고 고기 특유의 잡 냄새를 없애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자의 알칼리 성분이 유휴의 산성을 중화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열 보존력이 뛰어나 따뜻한 상태로 오래 유지되며 준다.

매끈한 유약처리로 세척액을 사용하지 않고도 깨끗이 닦이는 우수한 세정 능력과 뜨겁게 가열된 청자불판을 찬 물에 담가도 변형 및 파손이 없는 우수한 내열성이 특징이다.

청자불판은 특히 지난 7월 한국세라믹기술연구원의 종금속 용출 분석 결과 불검출 판정을 받아 조리도구로서의 안전도까지 보장받았다.

시식회에 참석한 전남도립대 한국음식과 박연진 교수는 "청자불판에서 삼겹살을 익히면 균일한 온도가 유지돼



지난 28일 강진읍 음식점에서 열린 청자불판 시식회.

지방총의 포화지방산을 녹여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풀깃한 식감을 얻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강진군 강진군수는 "청자불판 개발은 생활자기로서 강진청자의 의미있는 시도"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기능성 생활도구 제작을 시도해 강진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 9월의 남도 전통술 '대복홍주 진'

### 전남도 선정



전남도는 9월의 남도 전통술로 진도대복영농조합법인의 '대복홍주 진'(사진)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진도홍주는 고려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민속주로 조선시대에는 지초주(芝草酒)로 불렸으며 임금 진상주다.

대복홍주 진은 친환경 경정 찹쌀로 맑고 즐거운 순포주다. 알코올 도수는 60도로 매우 높지만 장기 숙성으로 맛이 부드럽고 뒤풀이 깔끔하다. 피를 맑게하는 이른바 청혈작용이 뛰어난 지초의 효능으로 숙취가 적은 것이 특징이다.

송승윤 대복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진도홍주는 영롱한 선홍색이 먼저 마음을 설레게 하고 감미로우면서 묵직한 맛과 향으로 애

주가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대복홍주 진은 2011년 남도 전통술 품평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품질을 인정받았다. 2007년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지역적표시 제26호로 지정돼 진도지역에서만 제조되고 있다.

소비자 판매액은 500ml 1병 기준 2만5000원으로 전화(061-544-1300)나 인터넷(www.jindohongju.com)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F1 입장권 사면 전남 주요 관광지 무료·대폭 할인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서 짜릿한 속도감 맛보고 남도 관광지서 저렴한 여행을 즐기세요.

F1대회 조직위원회는 오는 10월 4~6일 영암에서 열리는 F1 한국대회(코리아 그랑프리) 입장권을 사면

전남도내 주요 관광지를 무료 또는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무료 및 할인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10일(40일간)까지다.

전남 도내 52개 주요 관광지에서

## 해남군 출산율 전국 1위

지난해 2.47명... 전국 1.29명보다 1.17명 많아

### 출산친화정책 효과

해남군이 다양한 출산친화정책으로 출산을 전국 1위를 차지했다.

해남군은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출생통계'에 해남군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2.47명으로 전국 1위를 기록이다.

이는 OECD 평균 1.79명보다도 0.77명 높은 수치로, 여성 1명이 가입기간(15~49세) 동안 낳는 평균 출생아 수를 계산한 합계출산율에서 전국 1위의 기록이다.

해남군의 출생아수는 지난 2011년 529명에서 2012년 810명으로 281명(53% 증가)이 증가했다.

이 같은 출산을 증가는 적극적이고 다양한 출산 장려정책의 효과로 풀이되고 있다.

해남군은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매포소나 입구에서 F1 입장권을 제시하면 된다.

F1조직위는 오는 9월 15일까지 두 달간 도내 7개 골프장 주중 이용료 30% 할인행사도 하고 있다.

2013 F1 한국대회 홈페이지(<http://www.koreangp.kr>)에서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 볼 수 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TV  
조선

**‘만’ 가지 알찬정보와 ‘물’ 만난 살림꾼들의 ‘상’ 상초월 비법!**

**살림9단의  
만물상**

매주 일요일 밤 11시 MC김원희 | 안문숙 이광기 김한석 김민희

이 프로그램은 [www.tvchosun.com](http://www.tvchosun.com)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